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제임스 김 목사

# 목차

<b>서론</b>	3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 150:6)	5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시 47편)	8
모세의 노래 (1): 승리의 노래 (출 15:1-18)	12
모세의 노래 (2):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 (신 32:1-43)	19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2-4)	30
발람의 노래 (1): 우리의 종말을 노래하십시오! (민 23:7-10)	38
발람의 노래 (2):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십시오! (민 23:18-24)	47
발람의 노래 (3):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십시오! (민 24:1-9)	56
발람의 노래 (4): 우리가 바라보는 한 별을 노래하십시오! (민 24:10-19)	64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삿 5:1-31)	69
다윗의 노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활을 노래하라! (삼상 1:17-27)	80
여인들의 노래: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노래 (삼상 18:1-9)	85
하박국의 노래 (1):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91
하박국의 노래 (2):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합 3:16-19)	96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눅 2:8-20)	102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시 63:3)	108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34편)	114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 135편)	118
<b>결론</b>	123

# 서론

저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My Savior’s Love”라는 영어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이 복음성가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부부의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에서 죽은 후 그 아기의 뺨가루를 아내와 함께 물에 뿌리고 욕지로 작은 배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배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면서 '타이타닉'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과 입을 열어 이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게 하셨습니다: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wi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ur's love for me”[“감격 속에 바라보는 저 나사렛 예수님 주 어찌 날 사랑했나 추하고 흉한 죄인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내 노래 다 못담아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날 위한 구주의 사랑”(“감격 속에 바라보는”, 1절과 후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월요일 아침 (그 전날 주일 담당 의사가 나에게만 아기를 빨리 죽게하겠느냐 아니면 천천히 죽게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월요일 받고 빨리 죽게 하기로 결정했음) 제게 주신 시편 63편 3절인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주님의 영원하신 진실한 사랑이 주영이의 55일 인생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란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 때문입니다(시 117편).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 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요3: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롬6:23, 현대인의 성경)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엡1:3, 현대인의 성경).

숨질 때 되도록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2020. 2월)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새해 우리 승리장로교회 새해 표어는 바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리로 새해 표어 구절은 바로 시편 150절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1) 매주일 찬양 예배드리기, (2) 매달 가정 찬양 예배드리기, (3) 매일 혼자 찬양하기. 오늘 본문 시편 150편 6절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 아래 한 4가지를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Where?)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시편 150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그 성소에서”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우리는 “궁창” 즉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만한 장소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148)(박윤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everywhere)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왜(Why?)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보호 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2)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사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크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과 그의 광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How?)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150편 3-5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마지막 넷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Who?)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찬송할 자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찬송할 만한 모든 장소를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 찬송할 자들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그날 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 [시편 47편]

찬송을 흔히 세 가지의 힘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은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 주는 찬송은 내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입니다. 내 속으로 들어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찬양은 “밖으로 뻗어 가는 힘”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잡이' 역할인데 이것이 밖으로 뻗어 가는 힘입니다. 찬송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 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들을 정돈해 줍니다. 예배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며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러한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시편 47편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 2절과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와 의 것임이요 저는 지존하시도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란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더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두려움)의 대상이심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경외심보다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멋대로, 편안대로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과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러지는 찬양이 과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들어내는) 찬양입니까? 웬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출32:6) 노래하며 춤추며(19절) “뛰놀더라”(6절)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춤추는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 즉,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은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찬송가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특히 후렴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셀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기업, 즉 “야곱의 영화”인 가나안(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대상이 된 자에게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the praise of His glory)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12절). 즉,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우리가 구속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시47:5). 생각나는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404장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후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큰 왕”이 되신 하나님(2절), 그는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7절)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8절)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6절). 우리가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와 동일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혜의 시”으로 찬양해야 합니다(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못한 감정적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 묵상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은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입니다. 로버트 로우리(1826~1899)란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작시 원문은 이렇다고 합니다: (1절) '끊임없는 노래 속에서 나의 생명이 흐르도다/ 이 땅의 슬픔 위로 새 창조를 환호하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찬송을, 울려나는 음악소리 들노라/ 그 소리 내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리니 이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2절) '나의 기쁨과 위안 사라진다 한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니 어찌하리/ 그가 어둔 밤에 노래 주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싼들 어찌하리/ 주님의 피난처에 숨어 있으니 폭풍우인들 내 영혼 깊은 곳의 평온을 흔들 수 없도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시니, 나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이 작시 원문을 읽으면서 “끊임없는 노래 속에서 나의 생명이 흐르도다”라는 가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찬양은 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제임스 목사 나눔

# 모세의 노래 (1): 승리의 노래

## [출애굽기 15장 1-18절]

혹시 여러분이 요즘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러분이 요즘 즐겨 부르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찬양을 즐겨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몇 노래를 중에 요즘 종종 부르는 찬양 하나는 바로 찬송가 541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입니다. 장차 오실 재림 주 예수님의 얼굴을 뵈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다 보면 제 마음에 천국화 되어가는 경험을 종종 하고 합니다. 특히 3절 가사를 찬양할 때 더욱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천국의 삶이 그리워집니다: (3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먼저 잠드신 신앙의 조상들,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운 그분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때 더욱더 예수님이 그립고 영원한 천국이 그리워집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찬송가 403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worship)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8:1, 20; 9:1, 13; 10:3, 7, 8, 26).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러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6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1-18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얹으시고(14:27)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30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15:1). 다시 말하면, 이 노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출애굽을 마무리 짓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래로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에서 압승으로 끝난 하나님의 승리와 바다에서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우리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찬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이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등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a warrior)이신 하나님께서(3절)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타고 있었던 병거들과 기병들을 물로 덮으시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전멸하신 것을 보고서야(14:28)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31절).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찬양하되 그들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15:1-2).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찬송은 우리가 시편 118편 14절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내용입니다(Wiersbe). 그 때에 이스라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또는 “승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15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던 바벨론이던 이방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의 찬양을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온 승리교회 식구들이 예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승리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되 우리 가운데서 승리(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결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왕상18장).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 대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대결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약 5세기 전에 애굽(이집트)에서는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과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신들과의 결투가 있었는데 그 결투는 바로 오늘날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기 전의 이야기인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행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의 배경에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출 7-12장).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인 애굽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피재앙을 보면 이것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크눔(Khnum)이라는 나일강의 수호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의 온 집안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신 헤크트(Heqt)를 친 것이며,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쳐서 만들었던 이 재앙으로 땅의 신 셉(Sep)을 친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므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인 “곤충의 신 하트콕(Hatkok)(네 번째 재앙),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아피스(Apis)(다섯 번째 재앙), 의술의 신인 임호텝 (Imhotep)(여섯 번째 재앙), 하늘의 신 누트(Nut)(일곱 번째 재앙), 곡물의 수호신인 셋(Seth)(여덟 번째 재앙), 태양신 레(Re)(아홉 번째 재앙), 그리고 열 번째는 바로 왕을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서 이것은 초태생의 죽음은 생명을 부여한다는 오리시스(Orisis)를 무력화시킨 재앙이었습니다(인터넷).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 4-12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용사”이신 하나님(3절)께서 진노하시사(7절)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원수(6절)를 물리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병거와 군대를 모두 다 바다에 던지시고(4절)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사(10절) 큰물로 하여금 그들을 덮게 하신 것(5, 10절)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들 중에 주 하나님과 같은 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적 찬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요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신6:4).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 중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행하신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사단과 대결하여 승리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로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3-18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장차)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일이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후 주님께서는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성결한 처소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열방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사 그 모든 방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잡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16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지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사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서(17절) 그들과 함께하시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8절).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사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마지막 성취는 아닙니다. 그 마지막 성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사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인 진정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장차 행하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원(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즐겨 부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특히 4절을 찬양할 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앞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소망)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사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모세의 노래 (2):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

## [신명기 32장 1-43절]

여러분은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노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왜 여러분은 그 노래를 잊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제가 죽기까지 잊지 못할 노래 중 하나는 바로 찬송가 40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잊지 못할 사람들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 김창혁 목사님과 고 장을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들이 숨질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셨던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 장을수 할머니는 양로원 침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찾아볼 때마다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순간들이 제 마음에 귀한 추억으로 남아있기에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종종 고 장을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고 김창혁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셨던 그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티화나 멕시코에 함께 갔었을 때 양로원에서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 후렴을 멕시코 언어로 힘차게 부르셨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신년 1월 1일 저희 형 집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모였을 때 힘든 몸을 이끄시고 방에서 누워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잊지 못할 추억은 고 김창혁 목사님의 입관 예배 때 찬송가 40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순간은 슬픔과 눈물보다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란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인 “승리(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후 여러분과 함께 그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그 두 분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인 “승리(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출15:1-18). 그 승리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가운데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1-43절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이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기 전에 지은 노래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명하신 노래입니다(31:19).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죄를 범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자(19절) 이 노래를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22절). 어느 면으로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란 노래 가사 1절을 보면 “너 시험을 당해 범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것은 시험을 당해 죄를 범치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또한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쓴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란 노래 가사 1절과 후렴을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까?

(2)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앞에 증인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좇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16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하여금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당하도록 내 버려두실 것입니다(17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므로 이 노래로 하여금 그들을 쳐서 증인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잊지 말게 하시사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21절)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신명기 32장 1-43절의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제목 아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이요 진정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 다섯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구절들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5-6절) 교훈(2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the greatness of our God)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4절).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완전하시고 공평하시며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0장 후렴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2x).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명기 32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평하심과 신실하심, 정직하심을 들어내시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었고 또한 악을 행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악을 행할 우매무지한 백성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요 그들을 지으시고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같이 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부모님들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이르기 전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4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번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엡1:4). 신명기 32장 8-9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창세기 10장에 그 당시 나라들이 70개였는데(창10) 야곱인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70명이였다(46:27)는 것입니다(MacArthur). 이것은 신명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실 때에(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인 70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70개 민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경계를 정하시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넉넉히 땅도 놓아두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70개 민족들 중 야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사 그의 모든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 아십니까?(엡1:4)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5절) 그 목적을 성경 에베소서 1장 6, 12,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2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3-4, 7-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적자와 같이 지켜 주시므로(17: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3가지로 말했습니다(박윤선): (1)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이 거하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40년이란 광야의 고통의 통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금자리에서 어지럽게 하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에서 어지럽히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2) 독수리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보호하려고 너풀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당한 교회에 대하여 가까이 계셔서 그 위험을 면케 하려고 대비하고 계십니다, (3)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 자기의 날개 위에 그 새끼 독수리를 업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극적인



순간에(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우리의 배교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3-15절을 보면 모세는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살찌게 하고 부대케 하며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윤택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15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것”(16절), “마귀”(17절),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옛날부터 참된 신으로 알려진 하나님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새 신),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따라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섬겼습니다(17절)(박윤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관치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18절).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16, 18, 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케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당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23-2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략도 없고 지식도 없으며(28절) 지혜도 없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29절).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노래 가사 내용의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및 단련시키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노래 세 번째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망각과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및 재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노래로

하나님께 불러야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에서 제일 풍부한 이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살찌고 부대해 지며 윤택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물질을 우상화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배도를 하나님께 노래로 부른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330-339장에 있는 “회개의 사죄”의 찬송가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1절 가사를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 진정으로 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날 본문 신명기 32장 15-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인정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장차 받을 재앙을 노래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노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목상한 모세의 첫 번째 노래인 승리(구원)의 노래는 우리가 좋아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노래의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좋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 이러한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노래를 목상할 때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은 그 대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부분의 노래도 가르쳐 부르게 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및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범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길 원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를 범한 후에라도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회개의 사죄” 부분의 찬송가들을 하나님께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회개와 사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상과 죄악들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침략케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을 통하여(35절)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36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이 헛되고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37-3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39절)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40-42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노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3절과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앞드려서 비오니 성령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177장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349장 3절).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이러한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 자신의 죄와 싸움에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찬송가 349장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를 찬양하곤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제 자신의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참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를 범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므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우상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원수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자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원수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심을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시므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우상과 죄악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셨고 우리와 교회를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의 내용을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심판)하시므로 그의 땅과 그의 백성들을 속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39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므로 그가 사랑하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피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셨는데 이 사실은 새 언약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히9:12).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잊지 말고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 [요한계시록 15장 2-4절]

새해를 맞이하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는 표어를 걸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들 중 모세의 두 노래들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모세의 두 노래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인 승리(구원)의 노래(출 15:1-18)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하며(1-2절),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하며(3-12절) 그리고 (3)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13-18절).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인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신32:1-43)를 통하여서는 한 다섯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과(1-6절),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8-9절)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단련시켜 주고 계시기에(10-12절)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3)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배교로(15-18절)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19-27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28-34절)을 인정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야 하며, (4)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상과 죄악들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과(35-38절) 그렇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39-42절)을 찬양해야 하며 그리고 (5)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셨고 교회를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즐거워함으로(43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2-4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출애굽기 15장 1-18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승리교회 식구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the beast)인 사단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끝까지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MacArthur). 이 최후의 승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입니다. 승리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와 인간을 우상화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에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2절, 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수 곧 적그리스도의 수(“그의 이름의 수”)인 “육백 육십 육”(13:18)을 이마에나 오른 손에(16절) 소유하지 않게 하시사 최후 승리를 얻는 승리자들로 하여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장차 부를 승리자들 중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단3:1)에게 절하지 않으므로(14, 18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바 된 자들(20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다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16-18절).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신앙입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바 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히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믿음과 각오를 보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예언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더 적그리스도와 인간을 우상화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4절과 후렴이 생각났습니다: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연합 예배드릴 때 마다 성찬식 후 이 찬송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곤 했는데 여러분은 이 찬양을 노래할 때마다 특히 이 4절과 후렴을 부를 때 어떠한 각오나 헌신을 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라는 각오와 헌신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라는 각오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서는 승리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자들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어디서(where?) 장차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그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리바닷가”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John MacArthur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리 바다 가”(the sea of glass)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투명한 크리스털(유리)로 된 플랫폼(platform)이나 포장지역(pavemen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차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장소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사 구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른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서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부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첫 번째 노래를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출15:3)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되(14:25)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사(15:1, 4)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10절) 하나도 남김없이(14:28)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30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15:2)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출애굽기 15장 6절 와서는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14:31)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두 번째 노래인 신명기 32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경험한 자들로서 좀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은 좀 들 익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목성한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인 신명기 32장 40-41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나의 대적”)으로 여겨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들어 보수(보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갈보리 산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갈보리 산의 십자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이 요한계시록 15장 2-4절에 와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짐승”(계15:2)인 사단의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사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게 하시사 구원해주시므로 장차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great and marvelous works of God)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목격하므로 구원(승리)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목격하므로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저 천성에 올라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 (2)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3절)는 “만국의 왕”이십니다. 즉,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5-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하나님이시요 그는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인 신명기 32장 4절과 유사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곧 죄를 멸하시지 아니치 못하시며(“의롭다”함의 의미) 또한 그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일이 다 이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참되시다”의 의미)(박윤선).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복음성가 “주 다스리네”(The Lord Reigns)가 생각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앞에.” 여러분,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사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는 또한 참되셔서 의롭다 칭하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계15:3).

### (3)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십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과 만국의 왕이신 주님의 의롭고 참되신 길을 볼 때에 모든 만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사단의 적그리스도나 그의 우상들은 거짓된 신이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므로 모든 만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만민들은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적그리스도와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므로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15:4).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9장 “거룩 거룩 거룩”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2절)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3)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4)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주로다.”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과 기록을 노래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발람의 노래 (1): 우리의 종말을 노래하십시오!

## [민수기 23장 7-10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유가족 식구들과 조문객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 살았다고 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서 마지막이고, 최후요, 전부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인터넷).

성경 민수기 23장 7-10절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첫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내용 중 10절 하반절을 보면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발람의 노래(1): 우리의 종말을 노래하십시오!”란 제목 아래 발람의 첫 번째 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발람”이란 누구인가? 입니다. 발람이란 인물은 민수기 22장 5절을 보면 “브올의 아들”로서 브돌 지방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기 22-24장에서만 50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31장 8, 16절, 신명기 23장 4-5절, 여호수아 13장 22절, 24장 9-10절, 느헤미야 13장 절 그리고 미가 6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이란 이름인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Wood). 이 모든 성경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성경 구절들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면 발람은 거짓된 선지자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2장 18절을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4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2절)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1절) 모압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3절).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 그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케 하려고 했을 때(6절) 발람은 발락이 아무리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자기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18절; 24:13). 이것을 보면 웬지 우리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22:20)에 순종하여 발락이 원하는 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발람이란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에게 보냈을 때 그들의 손에는 “복술의 예물”(the fee of divination)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술의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을 치는 점술가(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모리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브올의 아들 술사(the diviner, one who practiced divination)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아도 발람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 점술가라고 말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구절들을 보면 발람은 점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또한 신약 성경 유다서 1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찢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말씀들을 볼 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보다 점술가로서 불의의 삯을 사랑하고 그 삯을 위하여 일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란 이름의 뜻이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인터넷).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요 점술가를 통해서도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케 하셨는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2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요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므로 발람을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신23:5),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 내었”다(수24:10)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발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23장 7-10절에 나와 있는 발람의 첫 번째 노래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을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발람의 노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변하여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비난과 저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죄를 범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 시므이란 사람에게 저주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란 사람이 나오면서 다윗을 연하여 저주했을 때(삼하16:5, 7-8) 다윗 왕 곁에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데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다윗에 요청했습니다(9절). 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10-12절). 이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히 이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듣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12절).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변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7절을 보면 발람이 예언을 지어 말하되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아람에서 데려다가 발락 왕을 위하여 야곱(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22:3).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였기에(3절) 모압 왕 발락은 사자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므로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이기어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6절).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압 왕 발락이나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해하지 않도록 이미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신명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몰랐기에 큰 두려움 속에서 점술가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는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3장 5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저주를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변하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함께 하셨던 요셉, 비록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요셉을 애굽에서 높이셨고 그로 하여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들의 대적인 하만 장군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되 유대인들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애통을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9:2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돌이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께 다 쏟으시사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합니다.”

**둘째로, 발람의 노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간 바위 위 높은 곳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22:1)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로서(12절) 다른 나라들(이방 나라들 혹은 열방들)과 떨어져 살되 안전하고(safety) 미래의 보장(security)을 받았다는 말입니다(Cole).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고 말한 것입니다(23:9).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자기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들 들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신명기 26장 18-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성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2). 우리가 이미 목상한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인 신명기 32장을 보아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32:9).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들을 선택하시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말입니다(10절).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시사 모든 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시121).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분명히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바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누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바 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바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3절 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셋째로, 발람의 노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땅에 티끌처럼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 여기서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라는 말씀은 동양의 과장법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MacArthur).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회막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을 치고 있었기에(민2장)(박윤선) 발람은 그 네 부분 중 한 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셀 수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분의 1도 이렇게 많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숫자는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셀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티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사 마치 티끌을 셀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의 숫자를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번식시키시고 창성케 하시되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창성케 하시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민23:10상). 저는 이 발람의 노래를 묵상할 때 복음성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3x)/ 보리가 그 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동서남북에 편만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창28:14)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면서 부르게 될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를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넷째로, 발람의 노래의 내용은 발람은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자기도 의인의 죽음(종말)을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모압 평지에 회막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고 있었던(22:1)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23:9),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 모압 지면을 덮힌(22:5)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분이 1만 보고서도(23:10)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임(22:12)을 알았던 발람은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자기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축복 받아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였기에(Cole) 그는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은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23:10). 그러나 발람은 민수기 25장에 와서 모압 지도자들을 조언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전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알브올, 즉 브올이란 곳의 바알이란 우상을 섬겼습니다(25:1-2) (Cole).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브올의 아들 발람은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께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고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바랬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케 하고 바알이란 우상을 숭배케 하는 죄를 범하게 하므로(31:16) 민수기 31장 8절에 와서 미디안의 다섯 왕과 더불어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의인의 죽음과 같기를 원했지만(23:10) 결국에 가서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떠나 미혹케 하므로 악인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벧후2:15).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걷어가서는 아니 됩니다(15절). 그 길은 어그러진 길입니다(유11). 우리는 발람처럼 입술로는 “아무리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민22:18; 24:13)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불의의 삯(벧후2:15)인 물질을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발람처럼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불의 삯인 물질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주님의 바른 길, 즉 주님께서 걷어가신 갈보리의 길을 걷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하기에 험난하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걷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발람의 노래(2):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십시오!

## [민수기 23장 18-24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한국문화는 실로 복의 문화이며, 한국인의 생활은 복을 빌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복을 빌러가는 게 한국문화의 전통입니다. 한국문화의 특색은 壽(목숨 수, 장수)와 福(행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 대문 손잡이로 부터, 문갑, 은수저, 옷 무늬, 베개 모, 방석, 밥주발 등과 같은 데에다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셋집 한 칸을 마련할 때에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福德房(복덕방)을 찾아 가게 마련입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오복인 수(장수의 복), 부(물질의 복), 강녕(평안의 복), 유희(훌륭한 덕을 닦음, 그리고 고종명(제명에 죽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인터넷). 실제로 구약성경 율법서나 시가서나, 예언서에서의 축복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축복이 지상적인 번영, 부, 명예, 장수, 후손 등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축복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이며 또한 영적인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어서 종말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장차의 부활과 영생이 곧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인터넷).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축복과 둘째, 영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인터넷).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성경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따라오는 축복으로서 다분히 조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상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 외에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자의 축복을 자주 언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0-12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경 민수기 23장 18-24절을 보면 우리는 발람의 두 번째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 부분 중 20절을 보면 발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발람의 노래(2):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이 발람의 두 번째 노래를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박윤선 주석 참조).

**첫째로, 발람의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진실성(신실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성경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자신이 연약하여 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 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꼭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수기 23장 19절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종종 제 마음에 생각나시게 하는 성경구절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 때 민수기 23장 19절과 더불어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묵상하게 될 때 ‘나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까 내가 불성실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실꺼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불성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제 영혼을 장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하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시138:3).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구절은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다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야’라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과 확신을 저에게 주시므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실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분명한 성취라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고 노래를 지어 말한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그리도 저주하고 싶고 저주케 하고 싶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22:12)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창12:1-3)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하나님께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발람은 그들을 “온전히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1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발람의 첫 번째 노래를 보면(23:7-10)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번성케 하시되 그들의 사분지 일만을 보고도 티끌 같이 많은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 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1절). 그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11절)라고 말했을 때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12절).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14절). 그 이유는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을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스라엘 진의 한 쪽 끝만 보이게 한 후(13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는 계획이었음. 그리고 발락은 거기서 일곱 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습니다(14절). 그 때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15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6절). 그리고 나서 발람은 노래를 지어 발락에게 말하였는데 그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로서 하나님의 진실성(신실성)을 노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발람을 통하여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고 싶었던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성(신실성)의 노래 내용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여 그들을 쳐서 이기려고 한 모압 왕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여 구별한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와 더불어 거짓된 선지자 발람이나 거짓된 왕 발락은 하나님께 패하여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도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심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잡고 요동하지(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를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1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3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둘째로, 발람의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심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적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인터넷). 예를 들어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다(who does not change)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로서 옛 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해시계(왕하20:11; 사38:8)와 달리 하나님은 마치 움직임 없이 해시계의 정 중앙에서 계속 빛을 비추고 있으므로 시계 바늘 자체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인터넷).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 3장 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와 변역지 아니하나니 ...”(I the LORD do not change).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에(민23:16) 발람은 노래를 지어 모압 발락에게 이르기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he has blessed, and I cannot change it)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변함없으신 신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The unchangeableness of the divine purposes is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unchangeableness of the divine nature)(Keil).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13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14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입니다.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13절). 그렇게 맹세하신 바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약 2,000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중생케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우리를 깨끗케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성도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지막 셋째로, 발람의 두 번째 노래는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부터 보면 발람의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하여 한 3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데도다 ….”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 행복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4장 6-8절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를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함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1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 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2절)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후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으라.”

## (2)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복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여 구별하여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으로서(출15:3)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되 민수기 2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강한 힘으로(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시사 바로 왕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사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는 또한 참되셔서 의롭다 칭하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계15:3).

(3) 이스라엘의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지금 점술가 발람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자기와 같은 점술가의 어떠한 사술이나 복술로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임을 발람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사자같이 일어나 그들의 원수들을 무찌르되 전멸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참고: 민24:9)(Walvoord).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믿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3절)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사 우리를 다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복음사가 “축복의 사람”을 찬양하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발람의 노래(3):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십시오!

## [민수기 24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광야 생활 중 행군 순서와 정착시 장막 배치 순서를 보면 흥미롭습니다(인터넷).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는 크게 4대로 나뉘어 행군했습니다: (1) 즉 맨 앞에는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로 제 1대로서 유다의 진에 속한 지파들인 잇사갈과 스불론 지파들이 행군했습니다. (2)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를 메고 뒤따랐으며, 그 뒤에는 제 2대로서 르우벤의 진기에 속한 지파들인 시므온과 갓 지파들이 행군했습니다. (3)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구들을 메고 뒤따랐으며, 제 3대로서는 에브라임의 진에 속한 지파들인 므나셋와 베냐민 지파들이 행군했습니다. (4) 끝으로 제 4대로서 단 진기에 속한 지파들인 아셀과 납달리 지파들이 행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행군했고 성막 기구 및 성물을 멘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사이에 끼어서 행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경건한 삶과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다가 부득불 광야에서 야영할 때에 그들의 장막 배치를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발람의 첫 번째 노래(민23:7-10)가 바로 모압 평지에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던 당시에(22:1)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되(41절) 그들의 사분의 일만(23:10)만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두 번째 노래(18-24절)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보게 하고자 발람을 데리고 소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의 한 쪽 끝만 보게(13절)하였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노래입니다.

성경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 발람의 두 번째 축복 노래 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되(23:27)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인(인터넷) 브올산 꼭대기로 인도하여(28절)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27절). 그러나 발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24:1)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낮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여(1-2절) 다시금 오늘 세 번째 노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10절).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절에서 발람이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은 발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즉 점술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발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23:26, 참고: 22:38, 23:3, 12)라는 식으로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므로 참된 선지자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발람은 사술을 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 때 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신23:5).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이스라엘)에게 축복”케 하셨던 것입니다(수24:10). 이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요 점술가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여(벧후2:15)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점술가조차도 다스리시고 사용하시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민23:16)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세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24:2)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발람을 지배하시고 사로잡으시사 그로 하여금 또 다시 이렇게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엿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곧, 발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이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의 노래를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How beautiful are your tents, O Jacob, your dwelling places, O Israel!).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라!”는 제목 아래 이 발람의 세 번째 노래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벌어진 돌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서(23:28) 그 낮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고 발람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24:2)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면서(5절) 그는 이스라엘의 행복함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함을 노래하되 발람은 이스라엘이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6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은 브올산 꼭대기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되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고 노래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 강가가 있고 물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고 있었던 발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광야의 강가와 물가를 보면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람의 노래 부분을 생각할 때 복음성가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1절)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 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똥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히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샘이 넘쳐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48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였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강가의 동산과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고 비유하는 것은 “강가”나 “물가”나 다 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발람은 물을 행복과 관련시켰던 것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발람은 사막에서도 바위를 쪼개사 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들이야말로 참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행복자들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자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사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요19:34).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롬4:25)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행복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8절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사35:6)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광야 교회(행7:38)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요7:38).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광야 교회 모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행복함을 노래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흥왕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끓어얕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서(23:28) 그 낮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고(24:2) 발람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면서(5절) 그는 이스라엘의 흥왕함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로 하여금 번창케 하시고 그들의 세력을 왕성케 하신 것을 보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 당시 강한 나라였던 아각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강하고 위대해 질 것은 노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8절)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의 적국과 싸워 승리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들소”, “수사자”, 또는 “암사자”로 묘사한 것입니다(8-9절). 이 모든 동물들이 힘을 상징합니다(박윤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힘 있는 강한 나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사 열국으로 하여금 그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두려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란 여인이 그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시에 하나님이시니라”(수2:9-11). 상천하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라합과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힘 있게 하시고 강한 나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사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 보기에 미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흥왕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그 때까지 위대하고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교회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흥왕케 하시되 우리를 번창케 하시며 또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하되 교회의 흥왕함 또한 노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22:12)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여(23:7) 그들을 쳐서 이기어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6절)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하는 것을 변하여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8절; 신23: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신2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5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번창케  
하시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사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되 그의 후손을 통하여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셔 저주를  
받게 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사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엡1: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발람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 우리 교회의 축복함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합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행복함과 흥왕함과 축복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발람의 노래(4): 우리가 바라보는 한 별을 노래하십시오!

[민수기 24장 10-19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후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다가오는 세상의 삶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훌륭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장례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민수기 24장 10-19절에 나오는 발람의 네 번째 노래를 묵상하면서 특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별”(a star)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별”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성경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그의 별”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별”이란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1-2절). 그 때 그 말을 들은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마치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 노래한 한 별이 쳐서 다 멸할 “소동하는 자식들”인 모압처럼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3).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흠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발람의 노래(4): 우리가 바라보는 한 별을 노래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 민수기 24장 10-11절을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모압 왕 발락은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발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원수인(24:10)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2:1) 저주케 하여 그들을 쳐서 이기어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는데(6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축복했기 때문입니다(24:10).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11절). 그러면서 흥미로운 점은 발락 왕은 자기가 발람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11절). 저는 이 발락의 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교훈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심히 존귀케 함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존귀케 하심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존귀케 하심을 받기를 사모해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는 것을 사모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발락의 말을 들은 발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때에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12-13절).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그가 사자들을 자기에게 보냈을 때 아무리 자기에게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리라고 한 말을 다시금 발락

왕에게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모압 왕 발락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발락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 왕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앞으로(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네 번째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4장 15-16절을 보십시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엿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발람의 세 번째 노래인 민수기 24장 4절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발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싶었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소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로잡아 말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박운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도 주장하시사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복을 세 번이나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10,13절).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았던 발람으로 하여금(15절) 그의 영의 눈을 뜨게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셨으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상(the vision)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16절).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겸손히 엿드리게 하여(16절) 이 네 번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Walvoord).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그의 영의 눈을 뜨게하시사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뜨게하시사 보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한 별”(a star) 또는 “한 홀”(a scepter)로서 “그”(He)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멸하며 또한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별”과 “홀”이란 말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들로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왕”입니다. “별”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별

이미지를 바벨론 왕의 멸망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흠”이란 왕의 주권(the symbol of royal power)(시45:6)을 상징하는 것으로서(Matthews)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9-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를 축복한 말씀으로서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을 또 다른 말로 “치리자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예언케 하신 이스라엘의 “별”과 “흠”은 가깝게는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MacDonald).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별과 흠인 다윗 왕이 멸할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소동하는 자식들”인 모압입니다(Walvoord). 즉,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한 별 또는 한 흠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멸할 것이라는 예언이요 그것을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있는 티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번뇌하는 가운데(22:3)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케 하여 싸워 이기려고 하였는데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노래한다는 것이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나와서 모압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하니 그 노래를 듣는 모압 왕 발락은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발람의 세 번째 노래(민24:1-9)에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장막을 노래했던 발람은 이스라엘이 아각 왕보다 더 흥왕할 것을 노래했습니다(7절하). 즉,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강하고 위대하게 높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의 적국과 싸워 승리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발람은 노래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0-19절에 나오는 발람의 네 번째 노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사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과 “그 원수 에돔”과 “그 원수 세일”(18절)등을 멸할 것을 발람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노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후로 나오는 발람의 다른 노래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아말렉”이나(20절), “가인 족속”(21절)이나 “앗수르”(22-24절)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을 발람을 통하여 노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과연 이 발람의 예언적 노래가 다윗 왕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부른 이 네 번째 노래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바라보게 하신 한 별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별”(또는 “한 흠”)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깝게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the Bright Morning Star)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과 전쟁해서 모압이 패하므로 말미암아 모압은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 섬깁니다(삼하8:2).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노래한 것은 이 다윗 왕이 모압을 멸하는 것만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유다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원수인 사단과 죽음을 이기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이 바라보고 노래한 한 별은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주이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교회의 원수가 되는 사단과 그의 우상들과 모든 교회의 적들을 심판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베푸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재림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과 모든 우상들과 교회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히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민24:18).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뜬음 같게 하시옵소서”

## [사사기 5장 1-31절]

아직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날 아침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파주에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눈발이 보이는 곳에 홀로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었던 그 때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눈밭에서는 딱 한분의 아주머니가 머리 세수건을 두르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 분과 멀리감치 떨어져 산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왜 그리 눈물이 하염없이 제 눈가에서 흐르는지 ...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같이 노래하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입술로 고백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중 대표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니엘 12장 3절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취므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소원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취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취고 싶습니다. 마치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는 자로 세움을 받아 쓰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사사기 5장 1-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드보라와 “아비 노암의 아들 바락”이란 사람의 노래가 적혀있습니다(4:6).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십년 동안 심히 학대한 가나안 왕 야빈(3절)과 그의 장군 시스라(2절)와 시스라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들(13절)과 싸워 승리한 후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결론은 바로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곧, 오늘 노래의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힘 있게 올라오는 태양과 같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하되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과 같이 되게 해주시사 점차 그 빛을 온 천하에 뻗치게 하시길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라는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입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 사사 드보라는 바락은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재촉하고 있습니다(2, 9절). 왜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솔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스라 장군과 그의 군대와 전쟁함에 있어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여 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로 인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두 번이나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이 헌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야빈 왕의 장군인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는 철 병거가 구백승이나 있었습니다(4:3, 13). 그런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만 명이 기손강 전쟁을 위하여 동원되었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군대를 대항할 만한 무기인 창과 방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5:8). 아니 숫자도 비교가 안 되는데 무기마저 없으면서 어떻게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성경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사사기 4장 6절과 14절을 보면 가나안 군대와 싸우고자 바락이 거느리고 나아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1만 명이었는데 오늘 본문 5장 8절을 보면 성경은 4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이른 바 “사만 명”이란 수는 정규 군인을 통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때에 기손강 전쟁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대중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만일 이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이 아닌 삼만 명은 민간인들이라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즐거이 헌신하여 전쟁에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이 헌신케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솔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싸우도록 즐거이 헌신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18절을 보면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헌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께 받은 사명(소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복음서가 “사명”이란 곡 가사 1절 생각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관촬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관촬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즐거이 생명을 받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가 힘입게 돋음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5장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야빈 왕의 장군인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좇은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후 사사기 5장 4-5절에 와서는 과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4절)(박윤선). 특히 드보라와 바락은 4-5절에 와서 산들이 하나님 앞에 “진동”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드보라와 바락처럼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사사 드보라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이 헌신케 하시사 가나안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와 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과거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본문 사사기 5장 4-5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먼저 과거 모세 시대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노래한 후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에 와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족속이 가나안 야빈 왕의 침략을 받아 그에게 압제를 당하였는지를 회상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은 후에 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4:1) 그들의 조상 때에도 모르던 이방 신들을 택하여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킵니다(5:8).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시므로(4:2) 야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한 것입니다(3절).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계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에서 바락의 손에 붙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7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앞서 행하시사(14절)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15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강한 나라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사사기 5장 20절을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시스라를 패배시키도록 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곧, 하늘에 기후 변동이 생기면서 구름이 덮여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마치 그 별들이 전장에 출동하여서 없는 듯 하고, 폭풍우가 일어서 기손강에 홍수가 넘침으로 시스라의 군대는 표류하여 망하였다는 것입니다(박운선). 결국 자연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된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때에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대가 있는 기손강에 물이 넘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병거들과 군인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21절).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오는 계절에는 절대로 자기들의 병거들을 가지고 늪 같은 땅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Walvoord). 그 말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그의 군대와 그의 철 병거 900대와 기손강으로 갔다는 것은 비가오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땅에서 그 많은 병거를 이끌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 기손강이 넘쳐 흘러 그 넘치는 물로 인하여 그 병거들과 군대가 휩쓸림이 되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사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를 철저히 다 갖추었고 강한 군대와 무기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므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므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가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시사 진멸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은 기손강의 물을 넘치게 하시사 그들을 쓸어버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그 원인이 우리의 범죄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도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죄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심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5장 15-16절을 보십시오: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이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다 멸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후(4:23) 오늘 본문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손강 전쟁에 가담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칭찬 받는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스불론, 잇사갈과 납달리 지파들이었는데 이 지파들 중 특히 바락이 속해 있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4:6)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 만 명은(6절)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5:18) 전쟁에 임하였기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중 르우벤과 길르앗(갓 지파의 땅)과 단과 아셀 지파는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17절). 그 이유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평안히 나태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특히 그 규탄 받아 마땅한 지파들 중 “르우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이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많은 시내들과 목장에서 평안히 있으면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결심한 바 있었으나 그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흥미로운 점은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생각하여(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에게(2절)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5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고 책망했습니다(6-7절). 그 모세의 책망을 듣고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좇아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는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결심까지 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결심하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들은 양을 치면서 너무 평안히 안주하고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뭐 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평안히 안주하는 것처럼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 많은 병거들과 군대가 왔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가축을 기르면서 평안히 살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자손들은 결심만 하고 모세 시대 때 가나안 정복 때처럼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하면서 결심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르우벤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을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심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심한 것을 분명히 실행으로도 옮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사(9절)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 동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시험해 보았습니다(12-14절). 그 결과 열흘 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15절).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16절).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심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심한 후 실행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심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가 힘 있게 돌음같이”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입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해가 힘 있게 돌음같이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죄악 된 세상에서 승리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싸우는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의 헌신된 자들이나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4장 7절에서 이미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바락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15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찌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삼상26:2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 자신과 죄악과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죽음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 교회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해가 힘 있게 돋음같이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1: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행20:24).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힘 있게 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을 걸고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주님께서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뜻을 정한 자들을 주님께서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해가 힘 있게 돋음같이 하게 하시사 이 어둡고 죄악 된 세상에 승리의 빛, 복음과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밝게 비취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2.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취라.
3.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취라.
4.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승리의 빛과 구원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발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다윗의 노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활을 노래하라!

## [사무엘하 1장 17-27절]

여러분, 혹시 2011년에 나온 한국 영화 “최종병기 활”이란 영화를 아십니까? 2011년 8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 활이 주요 무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 “남이”란 사람은 조선 최고의 신궁으로 나옵니다. 그는 역적의 자손으로서 유일한 피붙이인 누이 자인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 누이의 혼인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청나라 정예부대(니루)의 습격으로 그녀와 신랑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 때 영화 주인공 남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활에 의지해 귀신과도 같은 활솜씨로 청나라 정예부대를 하나 둘씩 처치합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자기 누이를 지키기 위하여 사상 최대 활의 전쟁을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공은 청나라 정예부대의 두목인 쥬신타라는 인물을 죽이고 그로부터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누나를 지킵니다. 이 영화는 그래도 해피엔딩(happy ending)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활”에 대한 영화를 잠깐 서론 부분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7-27절에 “활 노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도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노래 이름은 “활 노래”라고 정했는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활 노래는 다윗이 지은 노래로서 기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입니다(17절). 왜 슬픈 노래인가 하면 그 이유는 다윗의 제일 친한 친구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현대 말로 하자면 “조가”를 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17-18절). 그런데 이 조가의 제목이 바로 “활 노래”인 것입니다(18절). 왜 하필이면 조가의 제목이 “활 노래”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요나단의 활이 원수의 피나 기름을 흘리고야 말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오늘이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노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활을 노래하라!”는 제목 아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요나단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나단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용사”가 돼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27절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19, 21, 22, 25, 27절). 즉,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용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3절 하반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두 용사들은 전쟁에 능하고 또 용감하였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전쟁에 능하였다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들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도 내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칼을 무기로 잘 사용한 것 같고 요나단은 활을 무기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22절). “활”하면 다윗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에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에 한번은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하는데 도와줄 때 그가 자기의 활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삼상20:35-42).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윗이 예살 바위 곁에 숨어 있었을 때(19절)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35절) 아이에게 자기의 쏘는 살을 찾으라고 말한 후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자니 치게 쏘았습니다(36절). 그러곤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살이 네 앞 편에 있지 아니하냐”(37절),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38절)고 외쳤습니다. 그가 그리 외친 이유는 다윗에게 “네 길을 가라”(22절)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병기를 가지고 성으로 갔을 때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은 후 일어나 떠났습니다(41-42절).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활”하면 이 일이 생각났을 텐데 ...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므로(1절)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활의 노래를 애가로 지어 불렀을 때 분명히 요나단의 활에 대한 이러한 귀한 추억들로 인하여 요나단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가 애중지중 아끼는 활을 다윗에게 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활을 생각할 때 요나단은 활을 무기로 매우 잘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역대상 8장 40절을 보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쓰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일백 오십인 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울람의 아들”들은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또한 큰 용사요 활을 잘 쓰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활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 그들의 피를 꼭 흘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삼하1:22).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1)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곧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영광 주시네, (2)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찌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4)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요나단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용사”라고 다섯 번 칭하였는데 그 다섯 번 중 네 번은 “두 용사”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 두 부자가 함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용맹스럽게 싸우되 특히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19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비록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두 용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습니다(23절).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애가를 지어 노래하기를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23절). 두 용사들이 전쟁 중에서 함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25절).

주님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요 또한 동시에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되 지금 교회는 사단과 그의 적그리스도와 인간을 이상화한 그의 이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목상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5:2-4)에서 배운 것처럼 끝까지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최후의 승리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바 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함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행 20:24).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란 찬양 1절과 후렴이 생각납니다: (1절)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활 노래는 “최종 병기 활”이란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활 노래는 슬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심히 애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심히 아름다운 친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사랑하는 요나단의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그 친구의 사랑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족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죽으므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심히 애통할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의 물러가지 아니한 활처럼 영적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다가 우리는 승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주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사단을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십시오(찬송가 135장 후렴).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여인들의 노래: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노래

## [사무엘상 18장 1-9절]

여러분은 “질투”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질투”하면 1992년 6-7월에 MBC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질투”가 생각납니다. 텔런트로는 최수종 씨와 고 최진실 씨가 등장하여 젊은이들의 풋풋하면서도 가슴 저린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성숙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아픔과 기다림, 아름다움을 경쾌하게 담아내어 시대가 요구하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아직도 어렵듯이 기억나는 것은 그 드라마 주제곡인 “질투”의 가사 중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 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인터넷). 그 때 제 나이 24세, 그 드라마와 주제곡을 들으면서 젊은 총각의 마음을 자극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노래를 들으면 좀 싱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질투”란 그리 싱겁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질투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란 참으로 무서운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란 무엇입니까? 위키 낱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겨 탐내거나 혹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없애려는 하는 태도”(인터넷). 이 정의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비취볼 때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참 미워했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는 저에게 아무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저는 그냥 미워했었습니다. 원치 않은데도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질투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제 내적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 드는 질투 또는 시기는 결국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약3:15).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빌2:5-8). 만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고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낮게 여길 것입니다(3절). 물론 성경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위로부터 난”것(약3:17)으로써 성경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투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질투심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약3:15).

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질투하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행13:22)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목하였더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았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의 히브리 원어 의미는 ‘to watch with jealousy eye’(질투의 눈으로 보다)입니다(사전). 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본 것입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날 후로”에 있습니다. “그 날”,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6절) 뛰놀며 창화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노래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그 여인들이 노래한 것은 사울 왕이 죽인 자들은 몇 천 명으로 셀 수 있고 다윗이 죽인 자들은 몇 만 명으로 셀 수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박윤선). 즉, 그녀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 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 이었던 사울 왕,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므로 조연출이었던 목동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1, 3절)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20, 28절)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16절).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던 사울(12, 14, 28절)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힘 있게 내리므로(10절)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벽에 박고자 손에 든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10-11절).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울은 그 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므로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29절).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된 질투심의 결말입니다.

저는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여인들의 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교훈 3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세상에 어느 왕들이나 사람들보다 진정한 “다윗” 왕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에스더서를 드라마같이 묵상하면서 특히 “하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주신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 우리는 하만처럼 교만해질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을 때(에3:1) 그는 교만해져서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5:12; 6:6). 그 결과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잠언 16장 18절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만은 패망 당했습니다. 모르드개를 달고자 준비한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에(에7:9) 자기가 달려(10절)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같이 교만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겸손히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을 때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삼상18:8). 그리고 그는 그 때부터 다윗의 질투의 눈으로 주목했습니다(9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높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하지 않고 좋은 동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15:9). 그리고 그는 변명하기를 그 좋은 동물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려고 그리했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1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합니까? 오히려 사울은 마음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는 겸손해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무엘에게 청하기를 “내 백성과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울 왕의 말입니까?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와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노래하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18:7). 성경은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잠언 27장 21절 하반절인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란 말씀대로 칭찬이란 시련을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칭찬을 받을 때에 기분도 좋으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해 질 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만해 지지 않은 이유는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가서(삼상17:45)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46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교만을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사람들이 그를 높일지라도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 이유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쓴 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악 된 질투심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울과 같은 최악 된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시편 73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 한 자를 질시하여(3절) 거의 실족할 뻔 했다(2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였고 질투했었습니다. 아삽은 이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시편 73편 1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어 그는 최악 된 질투심을 극복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 아삽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17-20절)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25절) 그는 최악 된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악 되고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하박국의 노래 (1):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 [하박국 3장 2절]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7월 1일이면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이하여 6월 29일(금)과 30일(토)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주로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또는 “부흥집회”라고 부르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교회가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부흥”이 잘못된 의미가 부여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의미란 바로 “부흥”하면 우리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교회당도 크게 짓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걷히는 교회를 부흥된 교회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에 대한 인식은 “성장 제일주의”, “성과주의”, “경제 제일주의”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논리에 현혹되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집회를 “부흥회” 또는 “부흥집회”라 부르지 않고 “말씀 집회”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repentance)가 없는 부흥(revival)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1절에서는 “시기오늦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인 19절 하반절에 가서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는 “기도”라고 그러고 19절에서는

“노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노래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오놏”이란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오놏”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시편 7편의 머리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곡조의 이름으로서 열광적인 성격을 띤 종류인 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John Mac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이 단어는 음악-예배식에 의미가 있으며 하박국 3장은 노래고 불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란 그의 열정적인 노래로 표현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 가사 내용 중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우리 또한 “부흥”이란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경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주님께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무엇이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듣고 놀랐습니까? 그 소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1:5-11)와 바벨론(2:2-20)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간악”하고 “패역”하며 “겁탈과 강포”를 행하고 있었고 유다 가운데 “변론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행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박국 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다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4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악행과 불의를 행하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계명)을 지키려는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므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시대 때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쌌듯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한 일,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또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6절) 또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6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경계(12절)하는 차원에서의 징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12절). 오히려 그는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까지 돌아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징벌하실 것이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험하는 경외감, 또는 하나님과 그분이 신비로운 방식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표현”한 것입니다(로이드 존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은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징벌하신 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하며(2:3, 4)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되(10절) 술 취한 것 같(5, 15절) 행동을 제재할 줄 모르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으로 침략주의에 광분하여(박윤선)(5절)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며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한(8절)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외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노래고 간구한 것입니다(3:2).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그 분이 신비로운 방식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항부로 나아와 교만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간구하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3:2)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과 안락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고난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며 당해도 마땅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단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바르게 행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흥되고 순결하게 행해진다면, 나는 그 고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존스).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도 원했던 “부흥”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부흥”은 “보전하다” 또는 “살아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의미 외에도 “깨끗하게 하다, 교정하다, 모든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존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징벌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제거하며, 그들을 깨끗케 하시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움(경외심) 속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3:2).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한 것입니다(3:2). 이 간구의 뜻은 “죄대로 갚으면 유대 민족이 멸망 받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나, 그 민족을 징벌하는

중예라도 불쌍히 여겨 다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다”(박윤선). 이 기도는 시편 85편 2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 어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시편 85편 3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진노를 긍휼로 누그러뜨리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본성에 따라 행하고,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존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교회의 황무함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교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교회에 흐를 것이며 성령님의 바람이 이제 불어올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하박국의 노래(2):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 [하박국 3장 16-19절]

지난 주 사랑하는 저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의 두 번째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인데 그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물들에게 던지신 22가지 질문들 중심으로 책을 써 내려 갔습니다. 그 한 예로, 저자는 책의 첫 장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이 아담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인 “네가 어디에 있느냐?”(9절)라는 말씀 중심으로 글을 써 내려 갔는데 그 글 내용 중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 불순종하며, 왜 교만했으며, 왜 내 뜻을 거슬렀으며, 왜 범죄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을 찾아서 책망하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셨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풍랑으로 잡아내셨고, 범죄하고 은폐하려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모든 범죄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책망하시고 징벌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박국 3장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박국의 노래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



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였습니다(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흥”이라는 복음성가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저는 계속 이어서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노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어떠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헌신한 상황은 그가 “환난 날”(the day of distress)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환난 날”이란 무엇입니까? 그 환난 날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을 심판(징계)하시는 날입니다(1:6ff.). 우리가 이미 하박국 3장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박국의 첫 번째 노래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를 묵상하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악하고 패역하며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으로(1:3) 하나님께 죄를 범하되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열심히 식어진(4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6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취되면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농작물과 가축이 전연 없어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잠히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과 가축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 욥기 서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욥2:10) 물질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허락하시는 역경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적어도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이 간절히 이뤄지길 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8절).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도 원했고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주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허락하시는 역경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응답해 주심에 익숙하지 우리의 기도를 전혀 기대 밖으로 응답해 주심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기대 밖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슬픔과 눈물 속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참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뤄지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환난과 핍박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살전 5:16).

**마지막 둘째로,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대 백성들을 심판(징계)하시는 환난 날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되(2:2-20)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 앞에서 개선포처럼 병거를 타고 오셔서(3:8)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므로 주님의 백성, 곧 기름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13절) 하박국 선지자는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므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에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과 같은 사단을 심판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성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2)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을 심판(징계)하시는 환난 날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시18:17)들인 바벨론에게서 건지실 줄 믿었기에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셨던 말씀 또한 생각납니다: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후12:9).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9-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나의 힘이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두려움에서 믿음으로”(Fear to Faith)에서 이러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 상황이 그보다도 더 나빠져 갈 때, 우리는 그저 침착하게 참고 견디는 것 이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깨닫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헌신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 [누가복음 2장 8-20절]

우리 승리장로교회 2012년 표어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Praise the Lord O my soul!)였습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2012년 1월 1일 주일 신년 연합예배 때 시편 150편 6절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는 설교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한 해 동안 성경에는 나오는 노래와 찬송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노래”들부터 해서 “발람의 노래”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다윗의 노래, 여인들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이 묵상이 2012년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금년에 다가오는 성탄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맞이할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천사들의 노래를 배워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천사들의 노래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본 것은,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은 이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식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그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입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자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11절). 우리가 또 다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1절) 그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2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언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요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인 구주이시요 그리스도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 그들을 천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흥미로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천사를 통하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소식을 (다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둘째로 생각해 본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3-14절을 보십시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군”란 말은 천사들이 단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천군”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길 때 오늘 본문 13절은 “수많은”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 보고 들은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수많은 천사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2) 그들은 완성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 찬송한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천성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찬양이 아닙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승리의 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노래입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마지막 셋째로 생각해 본 것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즉, 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후 무엇을 행하였는가입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5-16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수많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은 주님의 사자(“주”)가 그들에게 알려준 큰 기쁨의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하고자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되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목자들이었다면 천사의 말을 믿고 다 함께 결심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고자 빨리 갔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므로 아기 예수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공휴일로 아기 예수가 없는 Happy holiday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자 삼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그를 보고 난 후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빨리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반응을 목상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요4:28-29). 그 결과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30절).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39절). 성경 사도행전 4장 19-2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들 또한 천사를 통하여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들은 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3)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주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본 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목자들 또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라기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천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생각난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은 바로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andel)의 “Gloria in Excelsis Deo”입니다. 이 라틴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 가사 내용 중 한 부분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Glory to God in the Highest)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인터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나이다,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외아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주님이시며  
당신만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주님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편 63편 3절).**

오늘 이렇게 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한국어 사역 찬양 팀에서 이렇게 ‘찬양의 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밤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찬양은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참된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애써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은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63편 3절에 나오는 다윗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광야를 성소(예배당)으로 삼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여섯 개의 찬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교회를 다녔겠지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한국 상계동에 있는 “상현교회”라는 곳에서 저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때 아버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뒤돌아 볼 때 생각나는 찬양은 바로 “돈으로도 못가요”입니다. 3절까지 있는 가사지만 1절 밖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절)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제가 아직도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많은 찬양 곡들 중에 이 곡이 잘 생각나는지…. 아마도 “돈”이라는 단어가 가사 1절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제가 한국 나이로 12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인 타운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다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험 봐야 한다고 해서 울면서 단어 20개를 외운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서 미국에 와서 그랬는지 미국 삶에 적응이 늦고 문화, 언어 차이 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이 말하는 방향의 시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의 자녀였기에 일요일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접하게 된 책들이 바로 김형석 씨와 김동길 씨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작은 철학자가 되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식의 질문들을 수 없이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행복과 목적을 세상에서 찾고자 방황했습니다. 그 때는 제 삶의 암흑기(?)여서 그랬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그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이 장소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집회도 마지못해 목사 아들이니까 참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 둘째 날인가 마지막 날 저녁에 감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사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예수님께 받친 소년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받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왜 그리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웬지 머리로는 듣고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 밖에 안 되는 존재를 부르시사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했습니다(감사의 눈물).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헌신의 눈물). 그 때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대학 공부 목적은 “돈”이었는데 그 수련회 후로는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즐겨 부르게 된 찬양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곡입니다. 영어로는 “I offer my life”, 즉 ‘나의 삶을 받칩니다’입니다:

(1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후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심비에 더욱더 깊이 적힌 마음의 찬양입니다. 제가 그 후로부터 기타 치는 것을 혼자서 스스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마다 대학교에서 Los Angeles로 올라와서 친구들을 만나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을 예수님께 받치고 나서부터는 이젠 더 이상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피면서 파티 다니고 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도 방황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 교회 식탁에 슬리핑백을 깔고 자기에 앞서 교회 밖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친구들이 지금쯤 어디에 있겠지 등등 생각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기타를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복음성가 집 책 맨 뒷면에 기타 코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D 코드, G 코드, A 코드 등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기타를 치면서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곡은 기타 코드라 제일 간단했거든요. 하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대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독교 동아리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때 제가 Personal manager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Personal manager이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비퍼(beeper) 차고 다니면서 연락 오면 제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차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ㅎㅎㅎ 마켓에도 데려다 주고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고 다시 기숙사로 데려주고 ㅎㅎㅎ 그 때 사람들을 돌보다가 몇몇 자매하고는 이성감정까지 들어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섬기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안 사실은 저를 또 짝 사랑했던 자매도 있었던군요. ㅎㅎ 그 때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매들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깊이 배우게 된 단어가 바로 “suppression”(억제)하고 “rejection”(거절)’이란 단어였습니다. ㅎㅎ 그 때 몇 번이고 자매들에게 거절당하면서 배우게 된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Benny Hester란 사람의 “Nobody knows my like you”(하나님, 당신만큼 저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용기내서 자매 사랑에서 이성 감정이 든 자매에게 제가 한 마디 듣고 상처 입어서 기말 시험 기간에 시험공부 접고 혼자 차타고 바닷가에 가면서 창문을 열고 그 노래를 크게 틀고 크게 외쳐 불렀던 때를 … ㅎㅎㅎ 그 때 이 찬양의 가사 중 특히 후렴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Nobody knows me like You (하나님, 당신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You put Your arms around me (당신은 당신의 팔로 저를 감싸셨습니다)  
 You bring me through (당신은 저를 도와주시사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And there's many times I don't know what to do  
 (그리고 너무나 많은 때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Though some know me well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Still nobody knows me like You (그래도 당신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All of my secrets to You I tell (저의 모든 비밀들을 당신께 말합니다)  
 You saw each time that I slipped and fell  
 (당신은 제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And all of my faults yes, You know them well  
 (그리고 당신은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But You've never turned me away, no, no, no”  
 (그러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때 지금 아내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에 있는 찬송가는 저희 결혼식 때 불렀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나 아내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잊지 못하는 찬양은 첫째 아기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한 후  
 뿔가루를 뿌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My Savior’s love for  
 me”(날 향한 주의 사랑) 혹은 “I Stand Amazed”(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 있네)라는  
 영어 찬양입니다: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 하시는지!)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갓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저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란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행 16:25)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26절) 저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사 이 세상에 매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더 아가서, 바울과 실라 등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다가(27절)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어 그와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31-34절) 오늘 밤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뤄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여호와를 송축하라”

## [시편 134편]

저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God’s sufficient grace)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에 가시”(a thorn in my flesh)를 자기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주님께 세 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간구하였지만 그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받은 바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족한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난 주 목요일 저의 장인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지 못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 라는 생각 속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음 성가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났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찬미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4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찬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이 3 단어는 각각 다른 관점과 맥락 속에서 찬양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단어는 “힐렐”(hillel)입니다.

찬양을 뜻하는 구약어 중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로써 기본적인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입니다. 이 동사는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창12:15, 삼하14:25;잠12:8)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신약의 그리스어 동사 아이네오(aineo)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찬양사역은 하나님을 자랑하여 높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 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표현됩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부딪히면서 이러나는 감탄과 흥분, 감격, 자랑스러움, 환희 등이 수반됩니다.

(2) 두 번째 단어는 “호다”(hodah)입니다.

종종 ‘감사하다’고 번역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고백하다’입니다. 이것이 해당하는 신약의 그리스어 동사 호몰로게오(homologeō) 역시 ‘고백하다’를 뜻합니다. 호다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거나 좋은 일을 해 주었을 때 보이는 반응인 ‘감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호다와 그 명사형 토다(생모)는 시편50편 14, 15절과 역대하 20장 21절에서처럼 종종 환난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즉 호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환난 너머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사역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사역입니다.

(3) 세 번째 단어는 “베렉”(berek)으로서 오늘 본문 시편 134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베렉’할 때에는 ‘복을 주시다’로 번역되고, 사람이 사람을 ‘베렉’할 때에는 ‘축복하다’가 되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베렉’할 때에는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송축이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혹은 증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호다’가 찬양이 두 내용, 즉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중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베렉’은 하나님의 행위,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한 증언입니다. 또한 ‘호다’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 고백하는 것인 반면, ‘베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호와와 모든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1절). 여기서 ‘여호와와 종들’이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섬기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제사장들)은 주님의 성소에서 밤에도 섬기고 있었던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실한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 2절).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하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마음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송축(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시편 기자는 밤에도 주님의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원하였는데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의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실 만한 힘이 무안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박윤선). 이 복을 주실 만한 힘이 무안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여호와를 찬송하라!

## [시편135편]

우리는 시편 134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저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말씀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또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5편 중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4번이나 반복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의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기자는 고백하기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쁜 일이다(“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4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우리는 이 4가지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음이 강박하고 죄를 범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8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his treasured possession)라는 말씀은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씀입니다(신26:18).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5절)께서는 자연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6절) 자연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보배로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자연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한 탕자가 거하고 있었던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탕자를 궁핍게하시사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눅 14:13-20). 또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박이나 흑암 등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건져 내신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된 백성들인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풍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족함 속에서 지내게도 하시지만 가뭄을 통하여 궁핍한 가운데도 거하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범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 비를 내리시게 하신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우비도 그의 때에 내려주시고 또한 비를 거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자연 은총(또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2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의 은총은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또는 자연 은총이라고도 말함)과 특별 은총으로 나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악인에게도 비와 내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5편 8-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들을 적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기적적으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9절) 그 중에 가장 큰 것인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처음 난 것, 사람이던 짐승을 치신 것(8절)으로 시작하여 10-11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신 일들,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4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대토록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 은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과거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면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달리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5-17절을 보십시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여기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써 또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거짓된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16-17절). 숨 쉬지도 못하는 이 죽은 신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로움만 주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영원한 기업,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5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말씀하였었는데 마지막 부분인 19-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도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시작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4번이나 권면하더니 끝날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4번이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자연 은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제임스 목사 나눔

## 결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시 47:2, 9),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요(4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8절).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모세의 노래 (1) (출15:1-18)].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모세의 노래(2) (신32:1-43)].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단련시키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해야 합니다[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계14:2-4)].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발람의 노래 (1) (민23:7-10)].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성(신실성)과 불변성을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2) (18-24절)].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복함과 우리의 흥왕함을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3) (24:1-9)]. 우리는 “한 별”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광명한 새벽별”(계22:1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합니다[발람의 노래(4) (민24:10-19)].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죄악 된 세상에서 승리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힘 있게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삿 5:1-31)].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다윗의 노래 (삼하1:17-27)]. 우리는 세상에 어느 왕들이나 사람들보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된 질투심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여인들의 노래 (삼상 18:1-9)].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고 간구하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

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하박국의 노래 (1) (합3:2)].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하박국의 노래 (16-19절)].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천사들의 노래 (눅2:8-20)].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제임스의 노래 (시63:3)].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증언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찬양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34편)].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여호와를 찬송하라!”(시 135)].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150:6).